

2011. 12. 19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: 2012년 멕시코 G20 아젠다

World Economy in 2012 and Global Economic Cooperation: Issues for the Mexican G20 Ahead

- 기간: 2011년 12월 19일(월)
- 장소: 서울 롯데호텔
- 주최: KDI · 기획재정부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3. G20 개발 아젠다 및 부산 HLF-4와의 시너지

발표 1. 멕시코 G20 아젠다 및 부산 HLF4와의 시너지
로헬리오 그랑기움 모르핀 멕시코개발협력청 총재

□ 개발 아젠다는 G20 서울 정상회의, G20 프랑스 정상회의 및 제 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의 주요 의제였음.

○ 서울 정상회의 때 여섯 개 핵심원칙 및 아홉 개의 서울 개발컨센서스 pillar가 발표됨.

- 칸느 정상회의에서는 아홉 개의 개발 pillar 가운데 식량 안보, 인프라, 개발 금융 아젠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 논의를 진행했으며, 특히 빌게이츠에게 '21세기 개발 금융마련 방안' 보고서 작성을 제안함.
 - 부산 HLF4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수립을 제안하고, G7+취약국가 지원, 원조효과성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으로의 전환, 투명성 강화, 시민사회와 기업들의 새로운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함.
- G20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펠리페 칸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국제 공조 강화, 구체적인 행동계획 마련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등 저개발국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G20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다룰 개발 아젠다들을 제안함.
- 경제 안정과 성장 촉진을 우선으로 도하라운드 합의 촉진, IMF 기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예방, 아프리카 기아 퇴치, 식료품 가격 투기 방지,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.
 -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촉구 및 지식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, 식량안보 및 가격 변동성, 인프라 구축, 녹색성장 방안 등 아홉 개의 pillar 중 세 가지 항목을 우선적으로 논의함.
-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주요 원칙들이 합의된 만큼 G20에서는 이들의 실효적 실행을 위한 정치적인 지원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부산 회의에서 도출된 개발의 원칙과 목적을 G20 개발아젠다의 분야별 합의 이행에 대입해 부산 HLF4와 G20 정상회의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.
- 즉 부산 회의에서 도출된 원칙들은 G20 개발실무그룹을 통해 정책적으로 실현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

발 표 2. 알랜 윈터스 영국 서식스대학교 교수

-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의제의 확고한 프레임을 완성한 우리는 합리적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 아젠다의 효율적인 실행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.

-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극빈층 축소를 위한 노력은 G20 개발 아젠다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.
 - G20 체제가 정치·경제를 조정하는 기구로 성장함과 동시에 G20 체제에서 주장하는 아젠다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G20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.
 - 또한, 혁신적 개발 금융 체제 마련, 부패 척결 등 새로운 개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아젠다에 대한 정책적 우선 순위를 제대로 가려내 전략적으로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함.

- 인프라, 무역, 긴급재정대출, 효율적 원조, 세계경제조율 등 다섯개 주요 아젠다의 우선 순위에 대해 논의함.
 - 인프라: 투자에 대한 효과는 장시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철저한 준비 하에 시의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. 특히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
 - 국제무역: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각 국가들은 국제 시장과의 교역을 확대함. 세계화 시대에서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세계 경제 시장과 마주하고 있으나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발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관세 철폐 등 통상 정책 추진 등이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함.
 - 긴급 상황에서의 대출: 저소득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중진국의 성장률과 큰 차이가 없음. 결국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 원동력의 차이가 경제 발전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음.

- 긴급 상황에서의 대출이 있을 때에는 별칙성의 금리가 부과되어야 하고 단기적 사용의 긴급 자금임을 명확히 하여 긴급자금에 대한 의존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
- 원조: 원조에 있어 거버넌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, 거버넌스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, 부패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원조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싹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
- 세계경제: 실제로 저소득국들은 주변 개도국들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, G20 회원국들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빈곤국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함.
-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G20은 거시적인 조정과 상호간 지원수단 확충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.

발 표 3. 존 영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영향평가*파트너십*RAPID 프로그램 연구책임자

- 1960년 ‘개발을 위한 지식’ 개념이 대두되었고, 1999년 세계개발 보고서에서 ‘개발을 위한 지식’ 용어가 사용되면서 개발 분야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됨.
- 1960년대 북반구에서 남반구, 1980년대 남반구에서 북반구, 북반구에서 다시 다른 남반구로 지식이 전달되고,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삼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짐.
- 오늘날은 이론적 해결 방법을 찾기 보다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김.
- 개발 지식의 공유에는 엄격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하는데,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 여부를 평가해 타지역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.
- 개발 지식의 공유는 다자간 은행, 국제기구 등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, 최근에는 전 세계 6,500여 개 싱크탱크의 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 지식 분야의 폭넓은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.
- 지식 공유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 원칙, 객관적 평가, 문건을 통한 명시적 지식의 전달 및 상호 공유, 파트너국 정책 기조와의 조화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함.
- 최근 후발 국가들의 국제 공여 참여 확대와 기후변화 이슈 대두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개발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,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가 간 이해 공유와 지식 공유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.

토 론 1.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국장

- G20의 개발의제와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며,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됨.
 - 지난 60년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52개국의 저개발국에서 3개국만이 저개발국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빈곤 속에 놓여있어 어느 때보다 개발과 관련된 협력의 효율성과 영향력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고 있음.
 - 중국, 브라질, 인도 등 신흥국들이 성장하고 그 외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이 개발협력 논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남남협력, 삼자협력, 민간 파트너십 등 새로운 접근법들이 개발되고 있음.
- 개발 논의의 우선 순위 선정에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나, 우선순위에 중심을 둔 접근방법을 취하면서 동시에 다른 개발 pillar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등 다발적으로 노력을 진행해야함.
- 멕시코가 G20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며, 개발 분야의 공동의장으로서 한국 또한 부산 프로세스의 극대화 와 멕시코 정상회의의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.

토 론 2.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

- 멕시코의 그랑 기욤 대사가 제시한 부산 HLF4와 G20 간의 역할 분담은 적절하며 적극적으로 동의함.
 - 부산 HLF4에서는 효과적 국제협력의 원칙을 마련했고, G20 개발아젠다의 경우에는 우선 순위 및 구체적 분야를 명시해 특정 분야별로 추구해야할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두 회의 간의 분명한 역할과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.

- 부산 포럼에서 구축된 사상 최대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파트너십은 첫 단계로, 멕시코 의장국 아래 G20 멤버국들이 더욱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함.
 - 개발노력의 실질적 활동은 부산회의의 building block(효과적 제도, 민간영역개발, 남남협력 및 삼각 협력)에 집중해 이뤄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
-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함.
 - 예컨대,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국제원조기구들은 한국의 비교우위는 농업이라는 판단 하에 계획을 반대했으나 한국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빛나는 산업발전을 이끌어냄.

- 이밖에도 부패 척결과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개발 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도모해야 할 것임.